

2주만 참자는데...예배 강행하고 유흥시설은 별천지

사회적 거리두기 대국민담화에도 도덕적 해이 심각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력하게 권고했음에도, 교회와 유흥시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 예배와 '불타는 주말' 영업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동참 분위기를 비웃는 듯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찾아간 광주지역 개신교회들은 정부와 광주시 권고에도 주말 오전 많은 신도들을 교회 내로 들어 예배를 강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무색할 정도였다.

동구 계림동 혜성교회에는 오전 9시 70~80명이 예배를 위해 모였고, 오전 11시 예배 때에도 120명 가량이 찾았다. 광산구 소촌동 송정중앙교회도 주말인 22일 오전, 교회를 찾은 신도들과 예배를 진행했다.

교회측 관계자는 "신도들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날 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256곳으로 파악했다. 전체 1451개 개신교의 17%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에서 85개 교회가 예배를 치러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62곳), 서구(58곳), 남구(32곳), 동구(18곳) 등이다.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측은 "광주지역 전체 교회에 주말 예배를 피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강제할 수 없고 현금으로 유지되는 일부 개척 교회는 월세조차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시설 운영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22일부터 4

교단협의회 자제 요청에도

광주 교회 256곳 주말예배

주점선 다다다다 불어 술잔

마스크 미착용자 제지도 안해

방역지침 무시 집단 감염 우려

자영업자들은 불멘소리

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 시설에는 종교 시설 외에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교장), 유흥시설(골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인데, 정부 담화문이 발표된 21일 밤과 22일 새벽 둘러본 유흥시설 분위기는 방침을 따르려는 커녕, 방역 지침조차 무시했다.

21일 밤 찾은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주점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다다다다 불어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층들로 가득했다. 서구에서는 지나가는 인파를 불러모으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버젓이 열렸다. 동구지역 주점들은 줄서 기다리고 있는 젊은층들을 상대로 마스크 미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착용을 권하지도 않았다. 동구와 서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출입 이후 벗어 던져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서구지역 클럽의 경우 200여명의 고객 중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이 손으로 짚을 정도였고 제지하거나 착용을 권하는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여·33)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 처음엔 주저했는데 친구들이 젊은이들은 괜찮다고 해 왔다"고 했다.

대부분의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사실상 상대방과 10~20cm 이내로 밀착해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이 같은 구조를 감안, 정부가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린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엇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세 번째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개혁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정부 발표가 주말을 앞둔 토요일에 이뤄졌음에도, 유흥시설에 고객이 몰리는 주말을 넘겨 평일부터야 현장 지도 방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위한 정부 방침을 이해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멘소리로 나온다.

정부는 영업중단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보상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한 지침도 없어 무작정 손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고남준 사무처장은 "정부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지만 어느 업종까지를 언급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고 한 달 임대로 4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내는 광주지역 나이트클럽과 감성주점 등만 100곳이 넘는데 15일 동안 문을 닫으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2일 오전 광주시 남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클럽을 찾은 손님들이 마스크도 쓰지않은 채 다다다다 불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해체 촉구

'세계 물의 날' 맞아 성명

지역환경단체가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4대강 보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물의 안정적 이용과 안전을 위해 강의 건강성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친수(親水)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둔지 개발, 체육시설 조성, 공원화 등으로 강은 자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역 정치인들의 영

산강, 광주천 공원화 정책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영산강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됐다"며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경과제가 제시됐지만 정작 보 해체 결정은 순조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천 포장, 편의이용시설, 보와 같은 구조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성년자 등 협박 성 착취물 찍고 유포 '박사방' 운영 20대 남성 구속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익을 취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조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

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완'으로 부르면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2일 오후 6시 현재 19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3차례 처벌 40대 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장형.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1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데다, 이미 1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보성군 노동면 소재